

"나는 기생충이야"

구충(鉤虫) 이야기 ③

李 純 炯

우리 구충을 속칭 채독벌레라 일컫는다는것은 전번에 말씀드린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채독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배추나 무우, 상치같은 채소를 날로 먹거나 견질이로 해서 먹었을때 목구멍이 간질 간질하고 구역질이 나며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해소기침이 연달아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채독이라 하고 몇달후에 빈혈에 빠지는때 그 원인이 다름아닌 우리 구충의 감염에 의한것입니다. 이 원인이 밝혀지기 까지에는 여러학자들의 힘이 컸지요.

한국의 오세남(吳世男)이란분은 일찌기 채독이란 우리 구충의 애벌레가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의 한 학자는 실제로 다섯사람의 지원자를 얻어 우리 구충의 애벌레를 먹인 결과,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은 채독증의 증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채독증의 병변은 개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처음 입으로 감염되었을때가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것으로 미루어 우리 구충에 대한 알리지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지요.

채소 먹고 난뒤 목이 간질 간질하면 우 리를 먹은것、日本서는 다섯사람의 지원 자가 애벌레를 먹고 임상실험



한국에서는 우리 구충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는 채소를 입에 넣자마자 구역질을 하고 기침을 수없이 하는가 하면 어린이는 토하기 까지 하는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박하지요. 후에 예방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처를 먹을 때 기름을 뚝뚝 칠하면 채독에 안걸린다는 말이 있으나 다 근거없는 거짓말이지요. 절절이나 상처살을 먹을때는 거기에 우리구충의 애벌레가 우굴 우굴 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니
지
만
어
른
되
면
한
곳
에
오
래
정
착
하
여
...
상
치
에
기
름
칠
하
면
안
걸
린
다
는
것
은
오
트
기
는
소
리
,
채
소
의
깍
질
에
는
우
리
애
벌
레
가
우
굴
우
굴
,
애
벌
레
때
는
강
아
지
처럼
싸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채소의 표면에 마치 지렁이나 미꾸라지떼가 꿈틀거리듯 아주 힘차게 꿈틀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충들로서는 사람들이 길이 길이 이런 채소를 생식하는 습관을 갖고 우리 구충의 자손이 창성하는것을 도와주기 바라지만, 우리 구충들도 한국 국민만은 괴롭히지 않으려는 애국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병폐를 어린 우리 구충의 애벌레가 일으키다가, 소장에 이르러 어른이 되면 좀 점잖아 집니다. 애벌레때 강아지 싸다니듯 돌아다니던것에 비하여 비교적 한곳에 오래 있으면서 피를 빨게 됩니다.

우리 구충의 이름을 십이지장충이라 한다하여 십이지장충이 우리의 기생부위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구충은 사람의 소장 중간 1/3부위에 기생하는것이 보통이지요.

우선 피를 빨기전에 배가 닳을 내리듯 우리 구충의 입가에 붙은 갈고리나 치판으로 장의 응모를 단단히 물고 피를 빨아내는데 피가 영겨서 잘 빠리지 않을때는 우리 구충들은 항응고제를 내서 피가 잘나오게 하지요. 그러다가 적당치 않으면 다른 응모를 다시 깨물게 되는데 이때 먼저 물었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출혈도 빈혈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깨물었던 장점막이 혈기도 하고 여기에 세균감염이 겹쳐서 만성장염이 된다는 학자도 있지요.

우리 구충이 있어 일어나는 병변과 증상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중 그요인이 될만한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충의 수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이 극소수 기생할때에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않고 사람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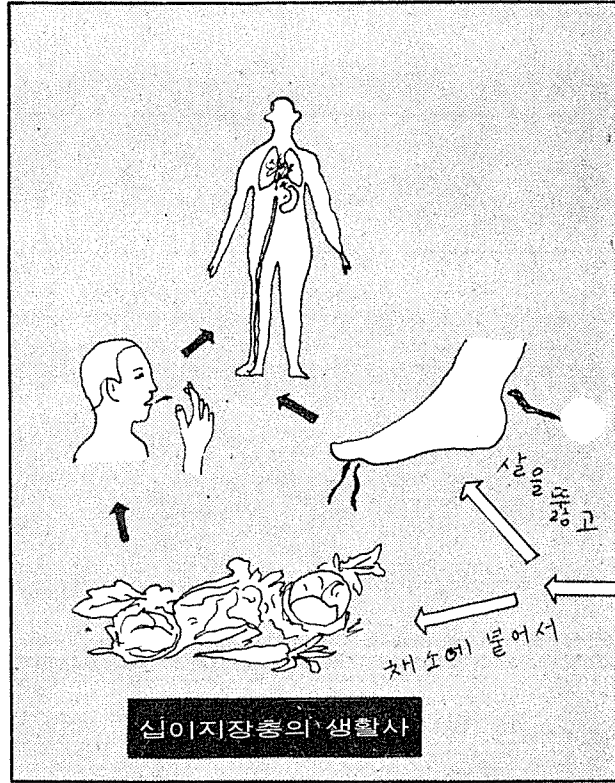
우리가 기생한다는것을 모르고 지내는때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경우는 25마리 이하를 가질 때이며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충보충자(保虫者)라 하지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보충자는 모든 구충감염자의 10~25%를 차지한다 합니다. 이 보충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충알을 배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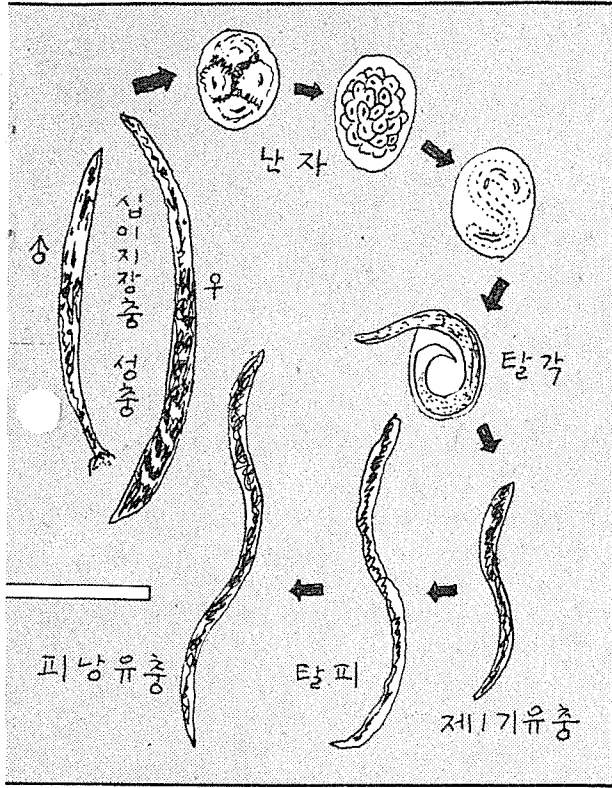
다음은 경증환자로서 우리 구충을 평균 26~100마리 갖고 있으면서 빈혈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명치가 아프거나 들부룩하고, 배가 부르며 소화가 잘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얼굴도 창백해지고 눈거품을 뒤집어 보거나 손톱밑을 보면 핏기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흙이나 숫갈은것을 집어먹는 토식증(土食症)을 나타냅니다.

중등증(中等症)은 100~5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하루에 우리 구충 한마리가 0.5ml 씩 흡혈을 한다면 50~250ml의 피가 매일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신체검사에 2~5ml의 피를 빼는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아까워 하지만, 우리구충들은 사람들 몰래 이것의 10~100배의 피를 기술적으로 빼내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500마리 이상이 감염되었을때를 중증(重症)이라 하여 역시 모든 감염자의 10~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얼굴빛은 백지장같이 되고 소화는 더욱 때로 이상하게 식욕이 왕성해져서 다식증(多食症), 토식증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깨물었던 자리는 혈에서 만성장염(慢性腸炎)이 되는 수도 있어



빈혈이 심해지고 더욱 숨차고 가슴두근거리는것도 극도에 달하고 때로는 얼굴과 몸이 붓게 됩니다. 어린이에서는 복부팽만이라 하여 속칭 창종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영양장애가 있어 몸은 바짝 마르고 창백한데다 배만 툭 튀어나온 형상을 하여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에 장애가 옵니다.

위와 같은 병변은 우리 구충들 가운데서도 튜비니구충에서 더 심하게 일으키고 아메리카구충에서는 좀 덜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이는 튜비니구충의 병원성이 아메리카구충에서 보다 5 배나 강하다고 말하지요.

하여간 항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생충감염에서는 걸렸느냐 안걸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걸렸느냐가 문제이듯이 우리 구충에서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되고 신육이 왕성해져
5배마리 이상감염되면
(重症) 얼굴빛은 백지장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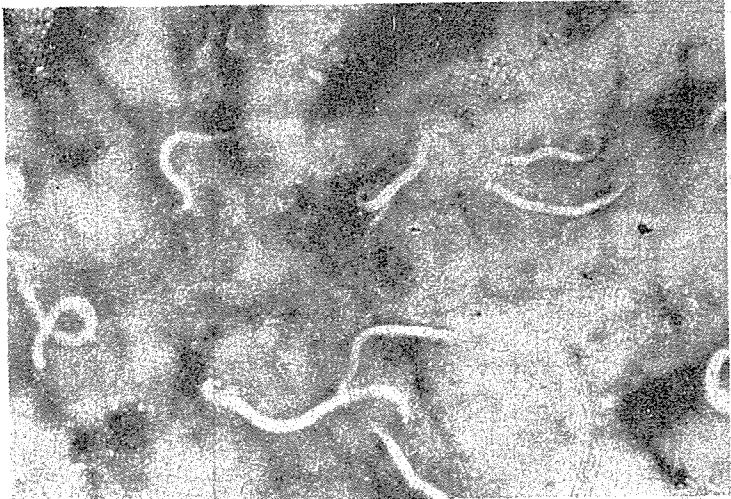
물체는 우리 구충의 나이와 병변이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한창 자랄때 많이 먹고 또 무취도 녹일만큼 소화가 잘 되듯이 우리 구충도 처음 사람에게 감염되어 혈기왕성 할때는 피를 많이 빨게 됩니다. 이때에는 하루 평균 0.67ml 가량된다고 합니다.

좀 나이가 먹어 감염된지 수개월 부터 수년이 되면 호흡량도 점점 감소하여 0.2~0.5ml 에 이른다 합니다, 그렇지만 호흡량 이외에 우리 구충들이 물었던 용모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까지 합하면 하루의 실혈량은 더 많아 지지요.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이렇듯 구충에게 피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대신 그 피를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겠읍니다.

셋째 요인은 환자의 저항력입니다. 우리 구충을 방어하는

능력이 강한 어른에서는 어린이에서보다 병이 가볍고 영양이 좋은 사람은 영양부족인 사람에서보다 증세가 잘 나타나 않습니다. 우리 구충이 배아가 가는 만큼 보충을 잘하면 되니까요.



장벽을 물어 뜯고 있는 십이지장충

그러나 우리 구충에 잘 걸리는 사람은 대개 가난하고 무지하고 영양상태가 나쁜사람들이라, 우리 구충은 생존을 위해서 이들에게 기생은 하지만 동정을 금할수 없어요.

네째번으로는 재감염의 문제입니다. 보통 유행지역에서는 항상 주민들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 구충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듯 다시 감염 되지 않는다면 처음 감염된 우리 구충이 6개월내지 1년내에 많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을 방지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충이 재차 사람몸에 들어 갈때는 우리의 위력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은 우리 구충의 재침입에 대해서 어느정도 방어태세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병이 처음보다 그리 심하지 않은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병변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우리 구충들이 피를 빨아내기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 주병변이 됩니다. 빈혈의 성격은 오랜시일에 걸쳐서 피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철결핍성빈혈의 특징을 갖게되는데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적혈구가 적어지며 또 혈색소의 함량이 적어지는 소위 소적혈구성 저색소성 빈혈의 소견을 보입니다.

걸린지 오래되거나 어른이 되면 증세가 가벼워져, 재감염(再感染)도 문제. 재감염 없으면 1년안에 거의 밖으로 밖으로 빠져나가

철결핍성 빈혈이 주증세(主症勢)、다혈구
 혈증(多血球血症) 환자는 우리가
 를 먹어 저질로 고쳐 드리죠. 전혈구

우리 구충을 아주 몹쓸놈으로 여기실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때도 있다는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빈혈과 반대로 적혈구가 이상적으로 많아지는 진성 다혈구혈증(polycythemia vera)이라는 병이 있어 매일 일정량의 피를 뽑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주사기 및 바늘을 소독해야 하며 환자는 주사맞기에 진절머리가 나는 번거로운 치료법대신, 우리 구충들을 일정한 마리수를 계산하여 감염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잘합니다. 매일 일정한 량의 피를 아프지 않게 잘 빨아내기 때문에 아주 환영을 받을때도 있습니다.

사물에는 양면(兩面)이 있다는, 즉 이(利)와 해(害)가 공존한다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필자 = 중앙의대 기생충학 부교수 · 의박>

